

素問·鍼解에 對한 研究

李康寧·鄭憲瑩·金永河·李康寧*, 朴旻**

I. 緒 論	99
II. 研究方法 및 資料	99
III. 研究 內 容	100
第 1章 鍼刺의 補瀉法	100
第 2章 刺鍼時의 姿勢	101
第 3章 九鍼과 天地四時陰陽과의 關係	102
V. 結語	104
參考文獻	104
參考辭典類	104

素問·鍼解에 對한 研究

李康寧·鄭憲瑩·金永河·李康寧*, 朴炅**

*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A Study on the *Chim Hae*(鍼解) of the *So Moon*(素問)

This part is to comment the part related to acupuncture among the contents of Ku Chim Sip I Won (九鍼十二原) in Young Chu(靈樞) and Bo Myung Jeon Hyung Lon(寶命全形論) in So Moon(素問).

This volume divide in three chapters.

Chapter I deals with rules of Bosa(補瀉) in acupuncture.

Chapter II deals with desirable attitude in acupuncture.

Chapter III deals with Ku Chim(九鍼) that correspond to the universe, four seasons and YinYang.

So Chim Hea(小鍼解) in Young Chu(靈樞) also comments Ku Chim Sip I Won(九鍼十二原) in the same way that this part does. And yet there are not a few differences from this part in noting.

Thus we need the comparative study of between this part and So Chim Hea to understand Ku Chim Sip I Won(九鍼十二原).

Therefore I made a comparative study of views of many physicians to correctly understand.

Key Words : 內經, 素問, 鍼刺, 補瀉, 九鍼.

접 수 : 2000년 4월 27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이강녕·정현영·천상묵·김영하·박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진단학교실
(063-850-6847)

I. 緒 論

本篇은 鍼刺補瀉의 方法과 刺鍼할 時의 注意點과 人間과 天地의 相應 및 九鍼의 적절한 用도 등의 鍼刺의 법칙을 主로 하고 있으므로 「鍼解」라 명명하였다.

本篇의 內容은 『太素』卷19 知鍼石에 있고, 王冰이 註釋하면서 卷14 54에 編述하였고, 『類經』에는 卷19 鍼刺類 「用鍼虛實補瀉7」, 「九鍼之義應天人3」에 編述하였다.

本篇의 內容은 3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章은 鍼刺의 補瀉法으로 「靈樞九鍼十二原」의 일부분을 註釋하였고, 第 2章은 刺鍼時의 姿勢에 대하여 「素問寶命全形論」의 일부분을 註釋하였으며, 第 3章은 他篇과 별개의 文장으로 九鍼이 天地四時陰陽에 相應됨을 說明하였다.

本篇은 虛則補之, 實則瀉之의 원칙에 근거하여 鍼刺補瀉의 操作方法에 대하여 解釋을 하였다. 또한 九種의 자연계 사물과 人體의 아홉 가지 부분을 본받아 九鍼이 다른 適應對象에 근거한 각기 다른 形態를 갖기 때문에 臨症時 세밀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論述하였다.

本篇은 鍼에 관한 論述인 「靈樞九鍼十二原」에 대하여 「靈樞小鍼解」와 解釋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精確한 理解를 위해서는 각 註釋家들의 見解를 比較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著者는 「靈樞九鍼十二原」의 深度있는 이해와 原文만 갖고서는 본래의 趣旨를 이해하기 어려워 各家의 註釋을 比較하여 精確한 의미를 밝히도록 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篇의 內容을 4장으로 나누었고, 原文과 各家의 註釋에는 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懸吐하였으며, 校勘, 字句解, 較註, 考察, 直譯, 意譯, 結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做宋版本』을 低本으로 하였고, 분류는 임의 『黃帝內經章句索引』과 程의 『素問註釋匯粹』를 參考하였다.

- 나. 原文중 「靈樞九鍼十二原」과 「素問寶命全形論」의 原文은 陰影을 가하였다.
- 다. 顯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현대 화하도록 노력하였다.
- 라. 校勘은 〈表. 1〉의 書籍을 열람하여 引用하였다.
- 마. 較註는 〈表. 2〉의 註釋書 가운데 內容이 유사한 것들을 모았으며, 모든 註釋중에서 가장 精確한 것을 중심으로 國譯하고,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로 처리하였으며, 較註과정에서 重點적으로 翻譯한 註釋에 '●'으로 표시하였다.
- 바.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 사. 本 研究에 사용한 符號는 校勘에 '()', 字句解에 '()', 較註에 '[]', 引用文獻에 '『』', 引用篇과 論文에 '『』'로 표시하였으며, 脚註는 '1), 2), 3) ……」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表 1」校勘書目 및 略稱

書名	略稱	備考
1 名抄本(半頁十行行二十二字)	名抄本	『黃帝內經校注語譯』에서 引用하였음.
2 太平聖惠方	聖惠方	
3 類說	類說	
4 醫說	醫說	
5 黃帝內經太素	太素	東洋醫學叢書影印本
6 黃帝內經素問吳注	吳本	中醫古籍出版社本
7 素問直解	直解	河南科學技術出版社本

「表 2」研究資料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王冰	唐	黃帝內經素問	王
3	馬蒔	明	黃帝內經注證發微	馬
4	吳崑	明	黃帝內經素問吳注	吳
5	張介賓	明	類經	景岳
6	張志聰	清	素問集註	張
7	高士宗	清	素問直解	高
8	姚止庵	清	素問經註節解	姚
9	楊維傑	1958	黃帝內經素問白話解	白話解
10	王琦等	1980	黃帝內經素問今釋	今釋
11	山東省中醫學院	1980	黃帝內經素問校釋	校釋

III. 研究內容

第 1章 鍼刺의 補瀉法

【原文】

黃帝問曰 願聞九鍼之解와 虛實之道^{하노이다}
 岐伯이 對曰 刺虛則實之者^는 針下熱也^니 氣
 實乃熱也¹⁾ 滿而泄之者^는 鍼下寒也^니 氣虛
 乃寒也²⁾ 苑陳³⁾¹⁾ 則除之者^는 出惡血也^요 邪
 勝⁴⁾ 則虛之者^는 出鍼勿按²⁾ 이라 徐而疾則實者^는
 徐出鍼而疾按之^요 疾而徐則虛者^는 疾出鍼而徐
 按之^라 言實與虛者^는 寒溫氣多少也^요 若無若有
 者^는 疾³⁾ 不可知也^요 察後與先者^는 知病先後也^라
 爲虛與實者⁵⁾ 是 工勿失其法⁶⁾ 이니 若得若失者^는
 離⁴⁾ 其法也^요 虛實之要^에 九鍼最妙者^는 爲其
 各有所宜也^라 補瀉之時⁷⁾ 者^는 與氣開闔相合也^라
 九鍼之名^에 各不同形者^는 鍼窮其所當補瀉也⁸⁾
 이다

【校勘】

- 1) 氣實乃熱也: 『太素』卷19 知鍼石에는 이 다섯 글자가 없다.
- 2) 氣虛乃寒也: 『太素』卷19 知鍼石에는 이 다섯 글자가 없다.
- 3) 苑陳: 『靈樞九鍼十二原』과 『太素』卷19 知鍼石』에는 '苑陳'으로 되어 있다.
- 4) 邪勝: 『吳本』에는 '邪盛'으로 되어 있다.
- 5) 爲虛與實者: 『直解』에는 '爲虛爲實者'로 되어 있다.
- 6) 工勿失其法: 『太素』卷19 知鍼石에는 '工守勿失其法'으로 되어 있다.
- 7) 補瀉之時: 『語譯』에 "『甲乙』에 근거하여 '補瀉之時'下에 '以鍼爲之'가 탈락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著者が 확인한 결과 『靈樞九鍼十二原』의 문장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 8) 鍼窮其所當補瀉也: 『太素』卷19 知鍼石에는 '針官其所之當補瀉'로 되어 있다.

【考察】

徐而疾則實者 徐出鍼而疾按之 疾而徐則虛者 疾出鍼而徐按之의 부분은 『九鍼十二原』의 '徐而疾則實 疾而徐則虛'에 대한 주석으로, 本篇의 해석과 『小鍼解』의 '徐而疾則實者는 言徐內而疾出也요 疾而徐則虛者는 言疾內而徐出也'라'의 해석이 다르다. 補法에서 本篇은 '徐出鍼'으로 『小鍼解』에는 '疾出'로 되어있고, 瀉法은 '疾出鍼'으로 『小鍼解』에는 '徐出'로 되어있다. 『小鍼解』의 註에서 景岳은 두 해석이 반대인데 鍼解篇의 해석이 옳다고 하였다. 鍼解篇의 註에서 馬 등은 "徐而疾則實은 經氣를 얻고 오래 지나서 拔鍼하고 鍼이 穴에서 拔鍼되면 迅速히 按하니 故로 사람의 正氣가 排出되지 않게 하여 實하게 함을 말하니 이는 補法이다. 疾而徐則虛는 鍼이 穴에 挿入하여 經脈에 이르르면 곧 빠르게 拔鍼하고 鍼이 穴에서 拔鍼되면 서서히 눌러 邪氣를 泄하여 虛하게 하니 이는 瀉法이다."하여 留鍼時間에 의해 徐出鍼과 疾出鍼을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小鍼解』의 徐疾補瀉의 方法에 違背되지 않는 다른 方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두 篇의 補瀉法을 종합하면 補法은 서서히 刺入하고 오래 留鍼하여 빠르게 拔鍼한 후 즉시 鍼孔을 按한다. 빠르게 刺入하여 經脈에 鍼이 이르르면 留鍼하지 않고 서서히 拔鍼하여 늦게 鍼孔을 按하면 瀉法이 된다.

言實與虛者 寒溫氣多少也에 대하여 『小鍼解』에서는 '言實與虛에 若有若無者는 言實者有氣요 虛者無氣也'라 하여 氣의 有無만으로 虛實을 구분하였으나 本篇에 諸家의 註釋은 氣의 多少뿐만 아니라 鍼下가 寒하면 瀉해진 것이고 熱하면 補해진 것이라 하여 補瀉의 개념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爲虛與實者 工勿失其法 若得若失者 離其法也의 부분은 『九鍼十二原』에 '爲虛與實에 若得若失'에 대한 註釋인데 『小鍼解』에서는 '爲虛與實에 若得若失者는 言補者必然若有得也요 瀉則恍然若有失也'라 하여 '補하면 가득히 얻은 듯하고, 瀉하면 홀연히 잃은 듯하다'는 의미로 解釋하였다. 本篇의 諸家의 註釋은 '若得若失'에 대하여 함부로 補瀉를 한 결과로 보고 治療原則의 遵守를 강조하였는데, 『九鍼十二原』의 文脈으로 볼 때 '爲虛與實'의 결과로 '若得若失'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小鍼解의 註釋이 보다 충실한

九鍼十二原	小鍼解	鍼解
凡用針者 虛則實之 滿則泄之	所謂虛則實之者 氣口虛而當補之也 滿則泄之者 氣口盛而當瀉之也	刺虛則實之者 針下熱也 氣實乃熱也 滿而泄之者 針下寒也 氣虛乃寒也
宛陳則除之	宛陳則除之者 去血脈也	宛陳則除之者 出惡血也
邪勝則虛之	邪勝則虛之者 言諸經有盛者 皆瀉其邪也	邪勝則虛之者 出針勿按
徐而疾則實 疾而徐則虛	徐而疾則實者 言徐內而疾出也 疾而徐則虛者 言疾內而徐出也	徐而疾則實者 徐出針而疾按之 疾而徐則虛者 疾出針而徐按之
言實與虛 若有若無	言實與虛 若有若無者 言實者有氣 虛者無氣也	言實與虛者 寒溫氣多少也 若無若有者 疾不可知也
察後與先 若存若亡	察後與先 若存若亡者 言氣之虛實 補瀉之先後也 察其氣之已不與常存也	察後與先者 知病先後也
爲虛與實 若得若實	爲虛與實 若得若失者 言補者 必然若有得也 瀉則 恍然若有失也	爲虛與實者 工勿失其法若得若失者 離其法也

解釋이라 思料된다.

'工勿失其法'에 대하여 『太素』에는 '工守勿失其法'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守'는 遵守의 의미로 '醫工은 그 法則을 遵守하여 잃지 말라'는 解釋이 되어 '醫工은 그 法則을 잃지 말라'는 뜻이 되어 보다 정확하고 강조된 의미가 된다.

'虛實之要 九鍼最妙者 爲其各有所宜也'에 대하여 各 註釋家는 九鍼의 主觀하는 病에 대해 註釋하였는데 吳高는 「九鍼十二原」과 같게 註釋하였으며, 王馬張의 주석에서는 鑱鍼은 頭身의 熱을 치료하고 鍉鍼은 脈氣의 虛少를 치료하며 長鍼은 心痺居骨을 치료하고 腰脊節膜之間을 解하며 大鍼은 虛風이 骨에 숨한 것을 치료하고 皮膚之間을 解한다고 하였으나 「九鍼十二原」에는 鑱鍼은 陽氣를 瀉하고 鍉鍼은 氣를 이르게 하며 長鍼은 遠痺를 取하며 大鍼은 機關之水를 瀉한다고 하여 主治하는 病이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王은 鍉鍼을 金非鍼으로 대신하였다.

'補瀉之時者 與氣開闔相合也'에 대하여 王吳는 시각에 따라 氣가 開하는 經脈이 다르며 이에 따라 刺鍼한 다고 하였으니 이는 子午流注鍼法과 부합한다. 馬 등은 氣가 오는 것을 맞이하여 瀉하고 氣가 가는 것을 좇아 補하니 이는 迎隨補瀉法과 부합한다.

九鍼十二原」에 대한 「小鍼解」, 「鍼解」의 原文을 비교하면 <表. 3>과 같다.

<表. 3> 「九鍼十二原」, 「小鍼解」, 「鍼解」의 原文 비교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九鍼의 解析과 虛實의 방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刺虛則實之'는 鍼下가 熱이 나게 하니 氣가 實하게 되면 이에 熱이 나는 것이고, '滿而泄之'는 鍼下가 寒하게 하니 氣가 虛하게 되면 이에 寒하게 됩니다. '宛陳則除之'는 惡血을 排出하는 것이고, '邪勝則虛之'는 拔鍼하고 鍼孔을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徐而疾則實'은 서서히 拔鍼하고 신속하게 鍼孔을 누르는 것이고, '疾而徐則虛'는 빠르게 拔鍼하고 서서히 鍼孔을 누르는 것입니다. '言實與虛'는 寒氣와 溫氣가 많고 적음을 말합니다. '若無若有'는 빨라서 알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察後與先'은 病의 先後를 아는 것입니다. '爲虛與實'은 醫工이 그 法則을 잃어서는 안되니 '若得若失'은 그 法則을 離脫한 것입니다. '虛實之要 九鍼最妙'는 九鍼이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補瀉之時'는 氣의 開闔과 서로 附合하여야 합니다. '九鍼之名 各不同形'은 鍼이 마땅히 補瀉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第 2章 刺鍼時의 姿勢

【原文】

刺實須⁽¹⁾其虛者^는 留鍼^{하야} 陰氣隆至⁽²⁾ 乃去鍼也^고 刺虛須其實者⁽¹⁾ 是 陽氣隆至^{하야} 鍼下熱^하 則 乃去鍼也^라 經氣⁽³⁾ 已至^에 慎守勿失者^는 勿變更也^라 深淺在志者^는 知病之内外也^고 遠近如一者^는 深淺其候⁽²⁾ 等⁽³⁾ 也^라 如臨深淵者^는 不敢墮⁽⁴⁾ 也^고 手如握虎者^는 欲其壯也^라 神無營於衆物

者는 靜志觀病人하고 無左右視也。義無邪⁵⁾下者는 欲端以正也。必正其神者⁵⁾는 欲瞻⁶⁾病人目하야 制其神하야 令氣易行也라 所謂三里者는 下膝三寸也。所謂跗⁷⁾之⁶⁾者 舉膝分易見也라 巨虛者는 躡⁸⁾足胛⁹⁾獨陷者⁷⁾。下廉者는 陷下者也⁸⁾라

【校勘】

- 1) 刺實須其虛者 …… 刺虛須其實者: 『太素』卷19 知鍼石에는 ‘刺其實須其虛者 …… 刺其虛須其實者’로 되어 있다.
- 2) 陰氣隆至: 『太素』卷19 知鍼石에는 ‘陰氣隆至’로 되어 있다. 『吳注』에는 ‘陰氣隆之鍼下寒’으로 되어 있다.
- 3) 經氣: 『太素』卷19 知鍼石에는 ‘降之’로 되어 있다.
- 4) 不敢墮也: 『吳注』에는 ‘不敢墮也’로 되어 있다.
- 5) 必正其神者: 『太素』卷19 知鍼石에는 없다.
- 6) 跗之: 『太素』卷19 知鍼石에는 ‘付之’로, 『吳注』에는 ‘拊之’로, 『直解』, 『張馬合註本』, 『類經』에는 ‘跗上’으로 되어 있다.
- 7) 躡足胛獨陷者: 『太素』卷19 知鍼石에는 ‘搖喬胛獨陷者’로, 『吳注』에는 ‘躡足胛獨陷者’로 되어 있다.
- 8) 陷下者也: 『太素』卷19 知鍼石에는 ‘陷者也’로 되어 있다.

【考察】

‘不敢墮也’에서 『吳注』에는 ‘不敢墮也’로 되어 있는데 ‘墮’와 ‘墮’는 동일한 字이다.

‘義無邪下者 欲端以正也’에 대하여 馬는 ‘義無斜下’로 하였고, 高는 邪가 斜와 通한다고 하였는데 ‘欲端以正’이 鍼을 直刺한다는 의미이므로 邪는 斜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所謂三里者 下膝三寸也 所謂跗之者 舉膝分易見也’에 대하여 楊은 足三里와 付陽穴로 해석하였고 景岳 등은 足三里와 衝陽穴로 해석하였는데, 付陽穴은 足太陽膀胱經의 經穴로 足陽明胃經의 經穴을 取穴하는 방법을 언급한 이 文句와 뒤의 文句로 볼 때 足太陽膀胱經의 經穴에 대한 언급은 적합하지 않다. 馬張·高는 ‘跗之’를 ‘跗上’으로 해석하여 足背上의 衝陽穴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素問·骨空論』의 ‘足陽明跗上動脈灸之’에 근거한

것이다. 丹波元簡은 『靈樞邪氣臟腑病形』에 ‘三里者는 低跗取之라’에 근거하여 ‘跗之’를 ‘低跗取之’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馬張·高의 주장대로 ‘所謂跗之者 舉膝分易見也’를 國譯하면 “이른바 衝陽穴은 膝을 구부리면 衝陽穴의 쉽게 나타난다.”라고 되고 丹波元簡의 주장에 의하면 “이른바 ‘跗之’는 무릎을 굽혀 발을 바닥에 대면 足三里穴이 쉽게 나타난다.”로 國譯되는데 ‘所謂三里者 下膝三寸也’의 문장과 ‘所謂跗之者 舉膝分易見也’의 문장이 구조적으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馬 등의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所謂三里者 下膝三寸也 所謂跗之者 舉膝分易見也 巨虛者 躡足胛獨陷者 下廉者陷下者也’에 대하여 景岳은 他篇의 文章이 本篇에 잘 못 들어온 것이라 하였는데, 著者の 견해 역시 上下의 文脈을 고려할 때 取穴法에 대한 언급은 本篇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맞지 않는 衍文으로 생각된다.

【直譯】

‘刺實須其虛’은 留鍼하여 陰氣가 隆盛하게 이르면 이에 拔鍼하는 것이요, ‘刺虛須其實’은 陽氣가 隆盛하게 이르러 鍼下가 熱하게 되면 이에 拔鍼하는 것입니다. ‘經氣已至 慎守勿失’은 變更하지 않는 것입니다. ‘深淺在志’는 病의 內外를 아는 것이요, ‘遠近如一’은 깊고 얕으나 그 徵候는 같다는 것입니다. ‘如臨深淵’은 감히 怠慢하지 않는 것이요, ‘手如握虎’는 굳세게 하고자 함입니다. ‘神無營於衆物’은 志를 고요히 하여 病人을 관찰하고 左右를 보지 않는 것이요, 뜻을 바르게 하여 비뚤지 않게 함은 端正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반드시 그 精神을 바르게 하는 것은 病人의 눈을 쳐다보아 그 神을 제어하여 氣가 쉽게 行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三里는 膝下의 三寸에 있고, 跗之는 膝分을 들어올리면 쉽게 나타납니다. 巨虛는 다리를 들어 正강이 홀로 함몰된 곳이다. 下廉은 함몰한 곳의 아래입니다.

第 3章 九鍼과 天地四時陰陽과의 關係

【原文】

帝曰 余聞九鍼이 上應天地四時陰陽¹⁾이라하니

願聞其方¹⁾ 하야 令可傳於後世以爲常也²⁾ 하노이다
 岐伯이 曰 夫一天 二地 三人 四時 五音 六律
 七星 八風 九野에 身形도 亦應之³⁾ 하야 鍼各有所
 宜 故曰 九鍼이라 人皮는 應天이요 人肉은 應地
 요 人脈은 應人이요 人筋은 應時요 人聲은 應音이요
 人陰陽合氣⁴⁾는 應律이요 人齒面目은 應星이요 人
 出入氣⁵⁾는 應風이요 人九竅三百六十五絡은 應野
 라 故로 一鍼皮 二鍼肉 三鍼脈 四鍼筋 五鍼骨
 六鍼調陰陽 七鍼益精 八鍼除風 九鍼通九竅하고
 除三百六十五節氣하니 此之謂各有所主也라 人
 心意는 應八風이요 人氣는 應天⁶⁾이요 人髮齒耳目
 五聲은 應五音六律이요 人陰陽脈血氣는 應地요
 人肝目은 應之九⁷⁾라 九竅三百六十五人一以觀
 動靜天二以候五色七星應之以候髮母澤五音一
 以候宮商角徵羽六律有餘不足應之二地一以候
 高下有餘九野一節俞應之以候閉⁸⁾節三人變一分
 人候齒泄多血少十分角之變五分以候緩急六分
 不足三分寒關節第九分四時人寒溫燥濕四時一
 應之以候相反一四方各作解

【校勘】

- 1) 上應天地四時陰陽: 『語譯』에 “『類說』卷37, 『醫說』卷2 「九針」을 引用하면 ‘上應天地陰陽’로 되어있다.
- 2) 令可傳於後世以爲常也: 『太素』卷19 知鍼石에는 ‘令可傳於後世而以爲常’으로 되어있다.
- 3) 身形亦應之: 『太素』卷19 知鍼石에는 ‘人形亦應之’으로 되어있다.
- 4) 人陰陽合氣: 『語譯』에 “柯逢時가 「九鍼論」에 의거하여 ‘合氣’ 두 字는 衍文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 5) 人出入氣: 『太素』卷19 知鍼石에는 ‘人出入氣口’로 되어 있다.
- 6) 人氣應天: 『太素』卷19 知鍼石에는 ‘人邪氣應天地 人面應七星’로 되어 있다.
- 7) 人肝目應之九: 『吳注』에는 ‘人肝目應之九竅三百六十五……’로, 『直解』에는 ‘人肝目應之’로 되어있다.
- 8) 閉: 『吳注』에는 ‘關’으로 되어있다.

【考察】

‘九竅三百六十五人一以觀動靜天二以候五色七星應之以候髮母澤五音一以候宮商角徵羽六律有餘不足應之二地一以候高下有餘九野一節俞應之以候閉節三人變一分人候齒泄多血少十分角之變五分以候緩急六分不足三分寒關節第九分四時人寒溫燥濕四時一應之以候相反一四方各作解’의 123字에 대하여 楊을 제외한 王冰이후의 諸家의 註釋이 蠹簡爛文이라 하여 註釋을 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부분과 ‘人肝目應之九’와의 관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吳景岳白話는 ‘人肝目應之九九竅三百六十五……’로 연결하여 ‘人肝目應之九’의 部分을 아래의 關文에 합하였고, 高는 ‘人肝目應之九’에서 ‘九’字를 아래의 關文에 합하였으며 王馬張今釋校釋은 ‘人肝目應之九’를 關文에서 빼어놓았다. ‘人肝目應之九’에 대하여 다수의 註釋이 있으므로 이 部分을 關文에 합하지 않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자 한다. 위의 123字에 대한 解釋은 諸家의 註釋에 따라 완전한 서적이 발견될 때까지 미루어 두고자 한다.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듣기에 九鍼이 위로 天地와 四時와 陰陽에 應한다고 하는데, 願하건대 그 方法을 들어 後世에 전하여 法道로 삼으려 합니다.

岐伯이 말하기를 무릇 一天 二地 三人 四時 五音 六律 七星 八風 九野에 대하여 身形도 역시 그에 應하여 鍼이 각기 適宜한 바가 있으므로 九鍼이라 합니다. 사람의 皮는 天에 相應하고 肉은 地에 相應하고 脈은 人에 相應하고 筋은 時에 相應하고 聲은 音에 相應하고 陰陽이 氣에 相合하는 것은 律에 相應하고 齒面目은 星에 相應하고 出入하는 氣는 風에 상응하고 九竅와 三百六十五絡은 野에 相應합니다. 故로 一鍼은 皮를 刺하고 二鍼은 肉을 刺하고 三鍼은 脈을 刺하고 四鍼은 筋을 刺하고 五鍼은 骨을 刺하고 六鍼은 陰陽을 조절하고 七鍼은 精을 補益하고 八鍼은 風을 제거하고 九鍼은 九竅를 通하게 하며 三百六十五節의 氣를 제거 하니 이를 일러 각기 主管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心意는 八風에 相應하고 氣는 天에 相應하고 髮齒耳目五聲은 五音六律에 相應하고 陰陽脈의 血氣는 地에 相應하고 肝目은 九에 相應합니다.

V. 結語

以上으로 「鍼解」에 대한 각 註釋家들의 견해를 比較, 研究하여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제 1장의 '徐而疾則實者 徐出鍼而疾按之 疾而徐則虛者 疾出鍼而徐按之'에서 '徐出鍼'과 '疾出鍼'은 留鍼時間에 의해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제 2장의 '附之'는 衝陽穴을 의미한다.
3. 제 2장의 '所謂三里者 下膝三寸也 所謂附之者 舉膝分易見也 巨虛者 躡足胫獨陷者 下廉者 陷下者也'는 衍文이다.
4. 제 3장의 '九竅三百六十五人一以觀動靜天二以候五色七星應之以候髮母澤五音一以候宮商角徵羽六律有餘不足應之二地一以候高下有餘九野一節俞應之以候閉節三人變一分人候齒泄多血少十分角之變五分以候緩急六分不足三分寒關節第九分四時人寒溫燥溼四時一應之以候相反一四方各作解'의 부분은 寶簡爛文으로 註釋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本이 나타날 때까지 解釋을 유보한다.

參考文獻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2. 王冰: 黃帝內經素問, 珍倣宋版印, 中華書局, 1972.
3.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7.
4. 吳崑: 黃帝內經素問吳注, 山東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83.
5.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2.
6.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5.
7. 姚止庵 撰: 素問經注節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8.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大一書局, 臺北, 1977.

9. 王琦 外 四人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10.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1.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3. 程士德: 素問注釋滙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4. 丹波元簡: 素問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15. 李國卿: 素問疑識, 黑龍江人民出版社, 黑龍江, 1989.
16. 胡天雄: 素問補識,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1.

參考辭典類

1. 張三植: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1975.
2.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3. 金賢濟·洪元植: 韓醫學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4.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5. 上海中醫學院文獻研究所編: 中國醫籍字典, 江西技術出版社, 江西, 1987.
6.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集文堂, 서울, 1991.
7. 洪元植: 韓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8.
8.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現代中韓辭典, 서울, 1990.
9. 梁柱東: 현대국어대사전, 一中堂, 서울, 1980.
10. 東亞國語辭典研究會: 동아 새국어사전, 東亞出版社, 서울, 1992.
11. 한국어사전편찬회: 한국어대사전, 玄文社, 서울, 1980.

12. 李熙昇編著: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